

# LS, 글로벌 전력 인프라·스마트에너지 사업 경쟁력 키운다

해외 사업 안정성·경쟁력 향상 목표  
그룹 차원 지역전략 수립·지원  
현지 진출 계열사들간 협력 강화

LS그룹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와 스마트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로, “해외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법인들이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

LS는 이를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진출한 계열사들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S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기자재 및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



LS일렉트릭 베트남 현장 모습.



LS전선 이집트 공장에서 전선을 생산하는 모습.

LS

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계열사인 LS전선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부품 사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에 활발히 투자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했다. 1월 이집트에 전력케이블 공장을, 지난해 10월 인도 생산법인(LSCI)을 준공하는 등 투자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만·미국·네덜란드·바레인

등에서 1조원 이상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했고, 11월에는 세계 1위 해상풍력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케이블로 국제 기술,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태양광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비롯해 전북 군산 유수지 등 30여 곳 이상의 태양

광 발전소에 태양광 케이블을 공급했고, 해저 케이블의 노후를 활용한 수중 케이블을 개발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LS비나가 2019년 베트남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총 5000만달러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알루미늄이 전기차 경량화 경쟁에 따른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전장 업체와 전기차용 알루미늄 전선 공급을 체결하고 양산에 돌입했

다.

LS산전에서 이름을 바꾼 LS일렉트릭도 앞으로 10년간 연 10% 이상 성장하고 글로벌 사업 비중을 70%, 디지털 신규 비즈니스를 50% 넘겠다는 ‘드라이브 체인지 포 2030’을 발표하고 혁신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중국 현지 ESS 시장 진출을 위해 창저우 쿤란 지분 19%를 인수했으며, 10월에는 가상 전시 플랫폼 ‘LS E-WORLD’를 구축하고 오픈해 글로벌 고객과 온라인 소통도 이어갔다.

지난해 9월 태국철도청이 발주한 약 130억원 규모 철도신호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며 태국 누적 1340억원을 수주하는 등 능력과 기술을 앞세워 수출 실적도 쌓아가고 있다.

LS 관계자는 “LS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관련 인재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넷플릭스, 올해 韓 콘텐츠에 5500억 투자

“지금까지 韓 콘텐츠에 7700억 투자”  
한국에 콘텐츠 스튜디오 2곳 마련

“2021년 한 해동안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K-콘텐츠 확보를 위해 연내 약 5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90여개국에 수출되는 K-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해 전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K-콘텐츠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25일 ‘콘텐츠 로드쇼 See What’s Next Korea 2021’을 열고 이 같은 투자 방침을 밝혔다.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동남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콘텐츠 총괄은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약 77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콘텐츠 제작 시장과 동반성장 하고자 노력했다”며 “올 초에는 장기적인 제작 기반을 다지기



넷플릭스 사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 겸 콘텐츠 책임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면 캡처

위해 한국에 콘텐츠 스튜디오 2곳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총괄은 “올해는 한 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며 “전세계에 한국 콘텐츠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 생태계의 동행 ▲영화와 사랑에 빠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의 ‘넥스트’의 순으로 열렸다.

실제 넷플릭스는 ‘킹덤’, ‘인간수업’, ‘스위트홈’, 최근에는 영화 ‘승리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전세계 2200만 가구가 ‘스위트홈’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킹덤의 경우는 ‘한국형 좀비’가 알려지는 계기가 돼 킹덤에 나왔던 한국형 ‘갓’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올해도 다양한 오리지널 신작을 선보일 방침이다. 좀비 사극 ‘킹덤: 아신전’부터, 좀비 학원물 ‘지금 우리 학교는’, 하드코어 호러 ‘지옥’,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오징어 게임’ 등이 제작 진행 중이다.

한편,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TV(IPTV)와 OTT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콘텐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 KT, ‘게임박스’서 토종 인디게임 키운다

한국인디게임협회 협력

KT는 25일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에 인디게임 3종을 신규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인디게임은 편린의 ‘소원’, AB Shot의 ‘IRA’ 사전 출시 버전과 엑스포테이토의 ‘컴온베이비’로 게임박스에 회원 가입만 하면 모바일과 PC, IPTV를 통해 기기의 경계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번 인디게임 출시를 KT와 한국인디게임협회가 이어온 협력의 결과다. KT는 인디게임 개발사 육성과 진흥을 위해 내달 말 한국인디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인디오락실에도 스폰서로 참여한다.

게임박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편린의 ‘소원(SOWON)’은

2018 에픽메가게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다. ‘소원’이라는 캐릭터가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을 마치 동화 같은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IRA’는 동양 판타지 콘셉트의 슈팅 액션 게임이다. 엑스포테이토가 개발한 ‘컴온베이비’는 여러 슈퍼헤이비 캐릭터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다.

인디게임 3종의 신규 출시를 기념해 KT는 내달 12일까지 2주 간 게임박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인디게임을 즐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니터와 헤드셋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KT는 오는 6월 말까지 게임박스 월정액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U+, 알뜰폰허브서 ‘대동단결’ 프로모션

U+알뜰폰 가입자 대상 혜택 강화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알뜰폰허브를 통해 U+알뜰폰 가입자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대동단결’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요 알뜰폰 사업자와 운영을 시작한 알뜰폰 통합 포털이다. 알뜰폰허브에 참여중인 U+알뜰폰 사업자는 미디어로그, LG헬로비

전, 인스코비,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큰사람, 스마텔, 아이즈비전 등 총 8개 사업자다.

이번 프로모션은 알뜰폰허브와 LG유플러스와 함께 운영하는 단독 프로모션이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알뜰폰허브를 통해 U+알뜰폰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3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쿠폰 최대 1만원을 증정한다. 5G요금제 2종 및 LTE요금제 3종에 가입하는 고객은 1만원 쿠폰을, 그 외 요금제는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현대자동차

‘2021 포터II’ 출시

현대자동차가 25일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한 소형 트럭 ‘2021 포터II’를 출시했다.

2021 포터II는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안전사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FCW)와 차로 이탈 경고(LDW) 등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 기존 상위 트림에만 기본 적용되던 안전, 편의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SK브로드밴드 여주위성센터가 올해부터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변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기업)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낸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쓰인다.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



여주위성센터 전경.

/SK브로드밴드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간 615메가와트시(MWh)다. 약 150가구(4인 가구 기준)의 1년 사용량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전력 전체를 여주위성센터 운영에 투입해 ‘100%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본격화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김나인 기자